

# “공수처, 반드시 연내 출범”... 민주, 법 개정 돌입

### 온택트 의원총회 “출범 방해 시도 용납하지 않을 것”

###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야당이 파격적인 결과를 내놓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며 “(추천위 회의는) 부차적이고, 우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전날)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그렇더라도 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소집된 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내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위는 앞서 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펼치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부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던 것”이라며 “이것이 지지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비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친문’ 홍영표 “대선, 제 3후보 나올 수 있다”

### “유시민 ‘정치 안한다’ 의지 확고... 정세균·임종석 자격 충분”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를 안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확고하다”고 전했다.

대표적 친문 인사인 홍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대선 후보감으로 거론하자 “정치 안 한다고 확인했다”면서 “지금도 그런 (안 한다는) 의견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설득할 생각이 없다”고 묻자 홍 의원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게 확고한 사람을 설득해 대선 후보에 나서라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드루킹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 역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확고히 하는 말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대선판에 확실한 2강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고 야당은 뚜렷하게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 이번 대선은 여당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서 경쟁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분명히 가

진 분들이 있다면 서로 경쟁에 참여해서 대선 판을 좀 풍부하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광재 의원 등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충분히 자격과 능력, 비전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당내 친문그룹으로 지칭되는 ‘민주주의4.0’을 최근 출범시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외에 제3후보를 친문그룹에서 지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의 이날 발언 역시 ‘제3후보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 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민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단독 의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

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용빈 ‘황룡강 장륙습지, 국가습지 지정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장륙습지 주변 난개발과 친수 공간 훼손을 우려하며 국가 습지로 보호 지정될 장륙습지 주변 개발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이용빈 의원은 “황룡강은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천혜의 생태환경자원으로 장륙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광주외곽권 송정역과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인 KTX 투자 선도구역 개발 역시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장륙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차

질없이 추진돼야 하며, 홍수 등 황룡강 치수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고, 이미 훼손된 황룡강과 주변 자연환경을 수질 복원과 함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야 한다”면서 “보존구역 이외의 주변 지역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휴식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3,600	2,680				골드(28)방2	3,210
		스위트형 방2개						로얄(34)방3	4,89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스위트B(31)방2	2,60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